

백중 물맞이와 돈내코



제주에는 백중날이 되면 물을 맞으러 가는 물맞이 풍습이 전해져 오고 있다. 예로부터 돈내코는 물맞이 장소로 큰 인기를 끌었던 곳이다. 사람들은 백중날에 이곳에서 물을 맞으면 아픈 몸이 낫는다고 믿었다. 돈내코는 사람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치유의 공간이었다.



돈내코로 | 서귀포시 상호동 1262-3 ~ 서귀포시 상호동 1927-1(약 3km)

하례학림로 |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625-1 ~ 남원읍 하례리 산114(약 2.9km)

하례돈야로 |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710 ~ 남원읍 하례리 1763-12(약 1.3km)

배낭골로 | 서귀포시 상호동 1290-2 ~ 서귀포시 토평동 1820(약 1.3km)

토평공단로 | 서귀포시 토평동 1762-5 ~ 서귀포시 토평동 3148(약 1.6km)

인정오름로 | 서귀포시 토평동 1945 ~ 서귀포시 토평동 산16-1(약 3.9km)

토평로 | 서귀포시 토평동 2240-5 ~ 서귀포시 토평동 1701-7(약 1.8km)

돈내코로 | 돈내코



원양폭포

돈내코로는 5·16로에서 갈라져 돈내코 계곡으로 향하는 길이다. 돈내코 주변 지역은 예로부터 멧돼지가 많이 출몰하여 돛드르라 불렸다. ‘돛’은 돼지를, ‘드르’는 들판을 가리키는 제주어이다. 이 멧돼지들이 물을 먹었던 내의 입구라는 의미로 돈내코라 부르게 되었다. 돈내코는 한라산 정상 인근에서 시작해 쇠소깍까지 이어지는 긴 하천이다. 제주에서 사시사철 물을 볼 수 있는 하천 중 하나이다. 돈내코의 풍부한 물은 인근에 있는 상호리와 토평리, 신흥리 사람들의 식수로 활용되어 왔다.

돈내코 계곡은 깨끗한 물이 흐르고, 주변에는 많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삼림욕을 즐기며 계곡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름이면 답답하고 무더운 도시를 벗어나 연인끼리, 가족끼리 자주 찾곤 한다. 돈내코 계곡에서 유명한 곳은 수려함을 자랑하는 원양폭포이다. 5m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의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는 에메랄드빛의 독특한 색감을 자아낸다. 웅덩이를 둘러싸고 있는 바위에 걸터 앉아 폭포의 모습을 가만히 보노라면 마치 한 폭의 풍경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바닥까지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물이 그리 깊지 않아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옛날 사람들은 여름에 백중날이 되면 원양폭포를 찾아 계곡물을 맛았다고 한다. 이렇게 물을 맞으면 그동안 달고 살았던 신경통 같은 병들이 사라진다고 믿었다. 병이 나도 마땅한 치료법을 찾지 못했던 옛날 사람들은 자연의 기운을 받아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렇게 돈내코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치유의 쉼터가 되고 있다.

하례학림로 / 하례돈야로 | 학림동과 돈드르

돈내코로 동쪽에는 효돈천을 따라 남북으로 이어진 하례학림로가 나 있다. 하례학림로는 하례리에 있는 학림동의 지명을 반영한 이름이다. 이 마을은 효돈천 계곡의 경치가 아름답

다워 관리들이 지나가다 들러 감탄하곤 했는데 지형이 학의 형태를 하고 있어 학림계곡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래서 학림계곡 위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학림동이라 했다.

하례돈야로는 중산간동로에서 하례광장로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하례학림로**와 나란히 학림동을 지난다. 이 지역은 과거에 나라에 진상하는 말을 키우는 목마장이 들어서 있던 곳이었다고 한다. 목마장이 폐지된 이후에도 하례리 사람들이 말과 소를 키우던 목장지대였다. 그러다 하례리 사람들이 더 북쪽으로 목장을 옮겨 가자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가축을 방목했다고 한다. 주로 효돈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돈드르(敦野)라 불렀다고 전한다. 그래서 이 길의 이름을 하례돈야로라고 했다.

배낭골로 | 배낭골

돈내코 입구 교차로에서 516로를 따라 남쪽으로 얼마 안가 서쪽으로 뻗어 있는 마을 길인 **배낭골로**는 이 지역을 이르는 이름인 배낭골에서 연유한 도로명이다. 배낭은 제주어로 배나무를 뜻한다. 과거 이 지역에 배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으로 보고 있다. **배낭골로**의 남쪽에는 제배낭알당이라는 당이 있다. 제배낭은 구실잣밤나무를 이르는 제주어이다. 구실잣밤나무가 많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당이어서 그렇게 불렀다. 칩오름의 서남쪽에 위치한 이 당은 토평의 막동골당에서 갈라져 나온 당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상호동 사람들이 다녔다고 전한다.

토평공단로 | 토평공업단지

배낭골로에서 다시 516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 인정오름으로 들어서는 길을 만난다. 인정오름 동쪽으로 이어진 길은 토평공업단지로 연결되는 **토평공단로**이다. 토평공업단지는 제주시의 화북공업단지와 더불어 지역 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공장들을 한 곳에 모아 불필요한 땅의 낭비를 막고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1990년대 들어 조성되기 시작해 199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입주했다. 지금은 제조업, 자동차 정비, 기계설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단지에 입주를 해서 운영되고 있다.

인정오름로 | 인정오름

토평공단로에서 갈라지는 **인정오름로**는 인정오름에서 시작해 산록남로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인정오름은 모양새가 인정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산의 형태가 위신이 있는 사람같이 보인다는 데서 이신산(伊信山)이라고 표기하고도 한다. 인정오름은 예전에 마을제를 지내던 곳이었다. 하지만 1970년 대에 이르러 마을제의 명맥이 끊겼다고 한다. 6·25 때는 영천악과 인정오름 사이에 있는 법호촌 일대에 육군의 숙영지가 생기면서 인정오름 부근이 훈련장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마을 주민들이 군인들이 남긴 탄피들을 주워다 팔기도 했다고 한다.

토평로 | 나비박사 석주명




석주명나비길

토평리 마을의 중심도로인 **토평로**는 토평마을 사거리에서 시작해 마을 안을 지난다. 토평에는 옛날 마을 안에 큰 연못이 있었는데 멧돼지가 내려와 물을 먹고 살았다고 해서 돛드르 혹은 저평리(猪坪里)라고 불렀다. 그 후 어느 지관에 의해 토평리(吐坪里)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토평로가 시작하는 지점에는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연구소가 있다. 이곳은 나비박사로 유명한 석주명 선생이 제주에 부임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석주명 선생은 나비 연구가로 뛰어난 업적을 남겼지만 제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제주의 방언과 민속, 향토사, 동식물 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분야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다. 그래서 제주방언집을 비롯해 제주도곤충상, 제주도 자료집 등 제주 관련 연구자료들을 다수 남겼다. 당시에 제주는 체계적인 연구가 힘든 시절이었고, 제주에 대한 인식도 그리 높지 않았다. 하지만 석주명 선생은 이미 그때 제주의 가치를 알아보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했다. 그래서 제주에 대해 총체적인 연구를 시작한 선구자로서 석주명 선생을 재조명하기도 한다. 그가 제주에 머무른 시간은 2년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가 남긴 다방면의 성과들은 오늘날 제주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아열대농업생명연구소 인근에는 석주명 선생의 흉상과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기념공원이 마련되어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그리고 돈대코 계곡을 따라 총 길이 6.3km에 이르는 석주명나비길이 조성되어 있다. 숲길, 오름, 마을로 이어지는 석주명나비길은 계곡 주변 숲길, 선조들이 만든 논골, 무궁화길 등 오래 전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법호촌 풍경과 영천오름 둘레길로 이루어져 있다.